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정기총회 단체 사진



황교안 전도사가 넥스트사랑의교회 말씀축제 강사로 나서 은혜를 나눴다.

## 국제총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총회 멕시코서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정기총회가 “건강한교회, 행복한 교회”란 주제로 17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89년 예장 보수합동 측의 미주연합회로 시작돼 분립한 국제총회는 현재 미주와 유럽, 한국 등지에 노회를 두고 있으며 중남미, 중국, 아시아, 구소련, 아프리카 등에서 선교하고 있다.

총회 동안 강사로 송도가나안교회 김의철 목사, 은혜한인교

회 한기홍 목사가 나섰으며, 결의된 사항으로, △목회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목회를 돕기로 했으며 위원장으로 김재문 목사, 위원에 김종욱 목사가 선출됐다. 또한 △강도사고시 문제 개선을 위해 신학부와 고시부를 중심으로 강도사고시 연구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한인 목회하는 교회와 한국에서 다민족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도 한국 노회에 소속케 하기로 했다. △GMI(Grace Ministries In-

ternational) 선교사 훈련원 제 10기 졸업식에서 14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7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졸업했으며, △GMI 선교사 훈련원 원장 이취임식에서 초대 훈련원장 강영철 목사의 후임으로 구본철 목사가 제 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국제총회는 총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가 없었다. 현재 국제총회 총회장은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부총회장은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이다.

## 황교안 전도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

44대 국무총리직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공직을 수행했던 황교안 전총리가 전도사 직분으로 남가주를 찾았다.

지난 22일 저녁 7시와 23일 주일 11시 넥스트사랑의교회(왕상윤 목사) 분당에서 열린 두번의 집회에서 NEXT 1차 인생 뒤집기 말씀 축제 강사로 나섰다.

22일 저녁 집회에서 황 전도사는 고후 6장 1-8절을 본문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체험한 고통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 중에 받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복에서 피난 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녀오면 나물을 캐며 부식비를 보태야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정이었지만, 10살 때 처음 교회에 나가 교사 선생님이 50년간 한번도 주일성수를 빼먹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니 구원의 은혜와 함께 삶이 변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간증했다. 황 전도사는 “공부하

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처음 들었다. 복음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났고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지어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쳐주고 국민들을 계몽시켰다”면서 “산천동 가난한 무명의 소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고 시도 패스하고 검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되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했다. 그는 “예수를 믿으니 평생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비전의 삶을 살게 해주시더라. 총리가 되고나서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너무나 고생을 했다. 그때도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기도부탁을 했는데 2주 만에 비를 주셨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해갈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길로 가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했다.

## 존 파이퍼 “자녀에게 ‘거룩한 기쁨’ 가르치자”

존 파이퍼 목사가 ‘기독교적 쾌락주의’(Christian Hedonism)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기독교적 쾌락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웹사이트 ‘디자인어

링 갓’(DesiringGod.org)에 게시된 QnA 코너에서 프랑스인 목회자가 어린이들에게 신학적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존 파이퍼 목사는 빌립보서 4장 4절(“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을 예로 들면서 “주 안에서라는 구절 안에 어

떤 의미가 있는 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것과 다르다”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한 것과 어머니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줘서 행복한 것은 다르다. 부모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웍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HEAL SYNCHRONICALLY OUR LAND**  
 2018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Multi-Ethnic Prayer Gathering  
 회개·부흥·회복·선교

**일시** 2018년 10월 28일 주일 오후 5시-8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우리의 오랜 기도 응답으로 미국이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이 대 부흥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계선교와 세계질서 유지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나라의 방향이 결정되는 11월 중간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드리는 은총의 자리에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b>대표대회장:</b>	한기홍 목사						
<b>공동대회장:</b>	강준민 목사	고승희 목사	고태형 목사	권혁빈 목사	김경진 목사	김기섭 목사	김기섭 목사
	김지훈 목사	김태형 목사	김한오 목사	노창수 목사	민경업 목사	민승기 목사	민종기 목사
	박성규 목사	박용덕 목사	박은성 목사	백정우 목사	신승훈 목사	안동주 목사	염규서 목사
	윤대혁 목사	이호우 목사	정영희 목사	지용덕 목사	진유철 목사	최홍주 목사	
<b>준비위원장:</b>	강순영 목사						
<b>공동준비위원장:</b>	이 서 목사	샘 신 목사	안병권 목사				
<b>사무총장:</b>	양경선 목사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양경선 목사 (213)255-1725

주관: 2018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  
 주최: 남가주지역교회협의회/목사회/여성목사회/장로협의회, O.C.평신도연합회, 미주성서회운동, CMF, 미스바기도운동, SOON Movement, HYM, Zion Mountain Foundation, JAMA  
 후원: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위클리,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포, CHTV18.7, CTS기독교TV, CGNTV, GBC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우리기독교방송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7:14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TEL: (714) 446-6200 www.gracemi.com

2014 Verizon Wireless Amphitheater Irvine | 2015 & 2016 Anaheim Convention Center | 2017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불면을 다루기



김보라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사람들은 균형 잡힌 일상을 위해 애쓰며 살아간다. 건강을 위해 골고루 음식섭취를 하고 균형 잡힌 운동을 하며 정신적으로는 개인의 방법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자신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한다.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개인의 취향에 맞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활력소를 얻는 것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받는 활력소와 더불어 우리는 수면을 통해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잠을 깊이 자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잠을 자는 것은 모든 호흡이 달린 생명체가 하는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잠을 잔다. 이렇게 호흡이 있는 생명체에 하나님은 '잠'을 허락하셨다.

사람들은 잠을 잠으로써 그날 하루의 피로를 해소하고 뇌는 기억을 정리하며 정보를 처리한다. 특히 중요한 업무는 쌓여만 가고 졸음을 이겨내느라 커피를 몇 잔째 마시는지 모른 채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주어진 바쁜 일을 끝내기 위해서 잠을 멀리했던 경험, 이와 반대로 간절히 자고 싶는데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어본 경험은 어떠한가? 어떤 모양이든 '수면'과 관련된 경험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잘 자는 것은 삶의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고 좌절된 경험을 안겨주는 골치 아픈 불청객으로 다가온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이는 심리적인 영향과 더불어

어 생활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정의할 수 없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임신과 육아, 폐경을 경험하면서 남성보다 흔한 불면증을 경험한다. 또한 불면증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한다면 이는 전문가의 상담과 약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면으로 인하여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피로감과 불편함이 누적된 피로로 이어져 일상을 살아가는 몸을 천근만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면증을 예방할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신체적인 면에서 불면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수면제는 일시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장기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기본적으로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 카페인은 바쁜 현대인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이기에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오후 시간을 피하고 오전에 마시는 패턴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좋다. 식습관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 전에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여 위에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의 몸이 편안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샤워와 더불어 족욕도 좋은 방법이다. 몸의 피로가 풀리면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마음이 잠시 가라앉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약이나 카페인과 식사 조절, 족욕 등은 하루 동안 긴장되고 피로한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 줌으로써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신체적인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불면 치료 방법이다. 믿는 크리스천에게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 순간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생각, 의식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 이는 불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과 상실감마저 안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불필요한 생각을 해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쩌면 불면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가 몸을 피곤하게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면 최고의 처방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고단한 하루 끝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잘 자고 다음 날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던가. 누구나 다 기분 좋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할 것이다. 고요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이어주는 수면을 위해 지금 나의 생활방식을 돌아보는 것은 어떤가?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박목월의 신앙은 신앙전승과 철저한 회개”

미주크리스찬문협 월례회, 강태광 시인 특강



미주크리스찬문협회가 9월 월례회를 22일 오전 10시에 로텍스호텔에서 열었다. 사진은 강사 강태광 시인

미주크리스찬문협회(회장 정지윤)가 9월 월례회를 22일 오전 10시에 로텍스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박목월의 신앙시에 나타난 신앙세계'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시인인 강태광 목사(미주 월드웨어)가 강사로 나섰다.

특강은 청중들이 박목월의 시를 읽으면, 강사는 시를 해설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어머니의 성경'이란 시에서 강 목사는 "박목월의 시는 어머니와 깊은 연관이 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자녀에게 이런 시를 물려주고 있는가이다. 이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가려고 한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면 회개해야 한다"며 "박목월의 신앙을 보면 첫번째로 신앙유산, 그리고 회개신앙을 꼽을 수 있다. 그의 시를 통해 젊은 날의 방향을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아보지 말자'란 시 해설에서 그는 "지금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몇백 번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다"며 "뒤를 돌아보는 까닭에 교회가 싸우고 회개하지 않는다. 이미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 그의 시를 통해 주를 향해 생명의 길을 보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1부 예배에서는 추덕업 목사가 '사울과 바울'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화량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 됐다.

시니어 커뮤니티센터, 새학기 신청 접수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티센터(이사장 이영송)가 10월~12월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 접수를 받는다. 반드시 사전 접수해야 참가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 별 선착순 마감한다. 커뮤니티 센터이므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새학기 접수는 25일(화)부터 27일(목)

까지 3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받는다.

이번 학기에는 <시네마천국>과 <서바이벌 영어> <시니어 요가> <미국본토 영어> <영어 말하기> 등 프로그램 6개를 신설해 영어 교육을 강화했다.

'시네마천국'은 온디맨드코리아의 협조로 매주 영화 한 편씩 감상하며, '서바이벌 영어'(목)와 '미국본토 영어'(토), '영어 말하기'(금,토)를 통해서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영어를 다양한 형태로 배운다.

'시니어 요가'는 노인들만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9학년

에서 12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STEM 교실을 통해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꽃꽂이 기초반'이 6개월 만에 재개강하며, '한국역사이해' 수업에서는 한국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꾼 주요 사건들도 다룬다.

특히 시니어센터 주말학교인 LA 미래대학의 '영어말하기, 미국본토 영어, 스마트폰교실, 라인댄스' 수업은 인기가 많다.

새학기에 신설된 6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문인들을 통해 총 38개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며뱅크카드서비스(대포 패트리홍)가 제공하는 모닝 커피 봉사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기간: 2018년 9월 25일 ~ 9월 27일 10:30am-02:30pm(선착순 마감)

장소: 시니어센터 2층 강당(965 S. Normandie Ave. #200, L.A. CA 90006)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창립한기홍목사 축제복흥성회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창세기 4:1~7- 일시: 2018.10.4(목) ~ 7(주일) 4(목) 7:30pm/5(금) 5:30am, 7:30pm 6(토) 6:00am, 7:30pm 7(주일) 7:30am, 9:20am, 11:30am, 2: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이경은 목사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담임)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 남가주목사회, 12일간 미주 횡단 완료...각 지역 목사회와 MOU 체결

애틀란타 · 매릴랜드 · 워싱턴 · 뉴저지 ·

필라델피아목사회, 뉴욕교협과 MOU 체결



남가주한인목사회가 미 대륙 횡단을 완료하고 6개의 단체와 MOU를 체결했다. 사진 가운데가 회장 샘 신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 신 목사)가 12일간의 미주 대륙 횡단을 완료하고 6개의 단체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남가주목사회는 25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횡단에서 총 6858마일을 차로 운전해 애틀란타목사회, 매릴랜드목사회, 워싱턴목사회, 뉴저지목사회, 필라델피아목사회, 뉴욕교회협의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욕교회협의

회와는 현재 교협 임원들의 임기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임원회 검토 후 오는 11월에 새회장이 취임하는 시점부터 MOU가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사회는 반성경적 가치관 확산에 대항하기 위해 미주 한인 목사회간 연합을 도모하고자 지난 9일 미주 대륙 횡단에 나섰다.

엘파소, 달라스, 매릴랜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애틀란타를 방문한 목사회 관계자들은 각 지역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숙식 제공과 도움으로 횡단을 무사히 마쳤음을 밝혔다.

남가주목사회 회장 샘 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횡단을 마치고 각 지역 목사회와 교협과 협력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 각 지역 곳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고봉준 목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화 같은 이야기”의 저자 고봉준 목사(사마리아 교정선교회 대표)가 엘에이를 찾았다.

그는 25년간 재소자를 선교하며 한국 교정선교의 대표적 인물로 인생의 최악의 나라에서 극적으로 회심해 목회자가 되어 국내외의 수많은 간증집회를 통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12일(수) 엘에이 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에서 집회를 인도한 고봉준 목사

는 살전 4장 17절을 본문으로 ‘위지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에서 ‘사형수도 변화시키는 능력은 기도이다. 한 사형수가 10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감옥 안에서 600여명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서 “항상 쉬지않고 훈련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내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봉준 목사는 주님을 영접하고 1992년에는 사마리아 교정선교회를 설립했다. 그는 지금까지 서울 성북·영등포·의정부 교도소 등 전국의 교도소와 해외 교회 등에서 2000회 이상의 집회를 인도했다. 이번 엘에이 일정은 9월 9일(주일)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주일) 오전 9시에 생명의 빛교회, 오후 1시에 은혜와축복교회에서 계속된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남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하리 다 돌리십시오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위드뮤직 제 4회 펀드레이징 콘서트가 지난 16일 열렸다.

## 위드뮤직 4회 펀드레이징 콘서트 개최돼

고아원 학생들 음악교육 위해 사용될 예정

“세상을 바꾸는 일은 아주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나이가 많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주 작은 우리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 바뀔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록 어렵고, 아직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힘이 없는 학생들에 불과하지만 남을 위해 품은 마음만은 무엇보다 크고, 깊고 따뜻합니다.”

음악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봉사단체 위드뮤직(With Music)의 제 4회 펀드레이징 콘서트가 지난 16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한인타운에 위치한 더원뱅크홀(The One Banquet Hall)에서 열렸다.

“다양한 악기와, 노래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음악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너무나 그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음악이 현재의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하루하루 레슨에 지쳐가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악으로 봉사하며, 풍요로워 지는 삶. 이런 혜택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엘에이에서 음악전문 교육원을 운영중인 사라 정 원장(위드뮤직 설립자)은 “교육자이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음악가로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음악으로 봉사하는 어린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이 단체를 시작했다. 음악을 배우고, 다른사람을 위해 연주하고, 음악으로 봉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펀드레이징에 참여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또래 학생들에게 악기를 전달하는 것이 위드뮤직의 모토이다. 위드뮤직 팀을 이끌고 있는 Eileen Jung 학생과 보드 멤버인 Roy Kim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연주회에는 LA Opera의 바이올리니스트 Dongfang Ouyang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했으며 Andrew Suh, Fiore Chung 등의 학생들이 솔로곡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으로 모인 모금액은 고아원 학생들에게 악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김용석 한의원의 김용석 원장(위드뮤직 이사장)과, CK Plastic Surgery의 캔 리 이사가 이번 2018-2019 위드뮤직의 보드멤버들을 장학금을 수여해 그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후원했다.

## 제 7회 LA기윤실 사회봉사상 후보자 추천 접수

LA기윤실은 오는 11월 3일(토)까지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LA기윤실 사회봉사상’(제7회)의 후보자 및 단체를 추천받는다. 시상식은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에 할 예정이며, 신청서는 LA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우편 (3130 Wilshire Blvd #410, Los Angeles,

CA, 90010)이나 이메일 (email4-lacem@gmail.com)로 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LA기윤실은 “이 상을 통해 한인교회와 사회의 좋은 모범 사례들이 알려지고 사회봉사의 실천이 더욱 퍼져나가는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82>

### 2018 KACH 총회를 다녀온 보고서(2)

KACH(미주노숙자한인선교단체협의회) 총회에서는 각 선교단체가 사역보고를 하고 질의 응답을 한 후, 단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 필자는 단체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도시에서도 빈민들 중의 빈민인 노숙자들에게도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해 매시간 눈시울을 적셨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시카고 기도의집을 지난 20여년 간 섬기어 온 김광수 목사와 김순영 사모 내외는 PCUSA에서 공식 도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후 지금까지 꾸준히 노숙자 재활과 비전사역을 해왔다. 어느덧 그 사역이 열매를 맺어 노숙자 중에서 목회자도, 선교사도 탄생되어 노숙자들에게 큰 희망의 빛을 주기도 했다. 날마다 드리는 노숙자 연합예배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리며 절망에 빠졌던 많은 노숙자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해왔다.

밴쿠버 뉴리빙스톤펠로우십 선교회의 육근대 목사는 요즘 하나님을 믿으신 새로운 사역으로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중이다. 지난해까지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리아 난민 귀화자들을 3만여명 받아 들었다. 그런데 그들중 50%에 육박하는 난민이 밴쿠버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가면서 그들 대부분이 지금 도시 난민 노숙자들로 급속히 전락하고 있다 한다. 그래서 뉴리빙스톤 펠로우십 선교회는 난민 대상의 도시선교를 결단했다.

먼저 난민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젊은 이들에게 기술을 습득하게 돕고, 재능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주며 그들과 함께 하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점차 도시 난민들에 대한 한인교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는 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이제 도시 선교의 대상이 아랍권 출신 노숙

자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회복의집을 섬기고 있는 최이스라엘 목사 내외는 지난 18년간 노숙자 속으로 들어가 그들 곁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많은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사역확장에 대한 욕심도 없고 거리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단 한 두 시간씩이라도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하는 기쁨으로 이틈없이 그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몇몇 분들이 생겨지면서 오랜 세월 외롭게 하던 사역에 큰 위로를 받고 있다.

House of Shepherd 선교회는 김두제 목사 가정이 동역자들과 함께 주 2회 노숙자 예배를 드리고 도시 빈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 구제 선교를 하면서 그들의 형제가 되어 주고 있다. 주변의 교회들이 그들의 사역을 알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같이 예배를 섬기고 있다.

시애틀에서 20여년간 노숙자들을 돌보며 KACH 연합 총회를 개설하고 지금까지 섬겨 온 선교회가 바로 동지선교회(Nest mission)다. 창설하고 이끌어 오던 김진숙 목사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후임에 이경호 목사와 정득실 목사가 공동으로 선교회를 맡아 이끌고 있다. 이 단체들은 빈민선교사역의 롤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면관계상 모든 사역 단체들을 다 소개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들이 하는 이 땅끝선교에 교회들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고대 지혜자 솔론이 전하는 행복 원리

서양 최초의 역사책인 헤로도투스의 《역사》 첫 부분에 크로이소스와 솔론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의 마지막 왕으로 엄청난 부호였습니다. 크로이소스는 그리스 도시 국가를 차례로 정복하고 리디아에 합병(舍併)했습니다. 이렇게 리디아가 강해지자 그리스의 현인(賢人)들이 크로이소스를 방문했는데, 솔론이라는 아테네의 존경받는 철학자도 크로이소스를 방문합니다.

권력과 재산, 그리고 제왕으로서 위엄과 교양을 갖추었던 크로이소스는 솔론을 궁궐에서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솔론이 크로이소스 궁궐에 온 지 사나흘쯤 지났을 때, 왕은 시종을 시켜 솔론을 보물창고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수집된 보물을 돌아본 솔론에게 크로이소스 왕은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여, 그대는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박학다식한 철학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론의 대답은 아주 엉뚱했습니다. “왕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테네 사람 텔로스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이유를 묻습니다. 솔론이 설명한, 텔로스가 행복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첫째, 그가 아테네라는 좋은 나라의 시민이었다는 것. 둘째, 그의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였다는 것. 셋째로 그의 죽음이 영광스러웠다는 것. 세 가지였습니다. 텔로스는 아테네가 침공을 당했을 때 나라를 구하고 전사했습니다.

김이 샌 크로이소스왕은 다시 묻습니다. 왕은 ‘그 다음에는 누가 행복한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테네 시민 ‘클레오비스와 ‘비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토’ 형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형제애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었으며 아주 용감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화가 나서 “뭐라고! 그대는 내가 누리는 행복이 서민들의 행복보다 못하다고 여기는가?” 그러자 솔론은 “왕께서는 값비싼 보물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끝까지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변화할 여지가 있는 동안에 행복을 평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변화할 여지가 있는 누구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상을 두고 경쟁하는 동안에 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상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판결은 불안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야 진정한 행복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크로이소스와 솔론의 대화를 통해서 고대 희랍의 지혜자들의 행복 원리를 배웁니다. 우선 행복을 묻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복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설명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행복을 설명하고,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과 삶의 활력이 행복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솔론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은 소속한 사회(국가/가정)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텔로스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었고, ‘클레오비스’와 ‘비토’ 형제는 어머니를 위해 희생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희생이라는 밑거름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진정한 희생에는 반드시 행복의 꽃이 필니다. 행복한 사람은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 교회, 지역 사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론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텔로스는 좋은 도시국가 아테네 사람이었다고 솔론이 말합니다. 클레오비스와 비토도 아테네 시민이었고, 좋은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을 살펴보면 배운 중요한 원리는 성숙한 행복 사회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행복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회에 소속해야 합니다. 나아가 행복을 위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솔론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은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답고 추모할 만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장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당당히 맞는 사람입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 텔로스나 클레오비스와 비토처럼 추모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죽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코골에서 호흡이 끝날 때 결정됩니다.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생 마지막에서 성공한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이듯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위함입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강태광 편집위원

### 방주교회, 옷놀이 통해 추석의 정 나눠



22일에 리틀도요 갤러리아 몰에서 제7회 한가위 옷놀이 대회가 열렸다.

제 7회 한가위 옷놀이 대회가 지난 22일 토요일 오후 1시 리틀도요 갤러리아 몰 2층 이벤트 홀에서 열렸다. 한가위 옷놀이 대회는 '방주교회 사랑의 점심 식사팀'이 주최하

고, 리틀도요 갤러리아와 마켓 플레이스가 후원했다.

이날 옷놀이대회는 1세와 2세 세대를 넘어 총 16팀이 참여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추석의 의미를 되새

겼다. 옷놀이 대회는 1등은 방주교회 2등은 Johnson's family 3등은 올리브 아파트 팀이 각각 시상했다.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한 김영규 목사는 “한가위를 맞아 한국 고유의 전통놀이를 통해 세대와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추석의 정을 나누는 행사를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히 어려운 경기에도 사랑의 손길과 협력을 해주신 기업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대회를 주최한 방주교회 사랑의 점심모임팀은 2009년 9월 첫 ‘독거노인의 사랑의 점심 나누기 모임’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중단하지 않고 매월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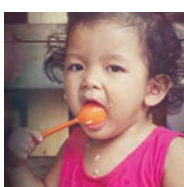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 사망의 울무가 되는 욕심

야고보서 1: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본문 야고보서 1:1-11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정탄생하신 이후에 마리아가 약혼했던 요셉과 정식 결혼을 하고 낳은 네 아들 중 맏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3:55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며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빈정대기도하고 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햇빛이 흐리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송장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모습을 본 후 그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른 동생들도 포함한 120명이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기도예를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에 불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되며 행동이 성실하여 그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당회장으로 사역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낮추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게 하심을 따라 거듭난 심령들,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소망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폐이라스 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록 회개했고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모셨다 할지라도 죄악의 근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영영히 없어진 것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미끼로 그 사람을 시험하게 하고 범되하게 해서 다시 지옥으로 가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부적 압력 박해입니다. 내적으로 잠재된 욕망을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하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유혹 Temptation)입니다.

또 다른 시험은 외압에 의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니까 마귀가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신앙심을 빼앗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하

고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행패와 억압,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순풍에 돛단듯 아무 시련도 없이 천국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환란과 시련, 행패와 고통, 핍박, 여러 가지 억울하고 심지어 육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이 유리방황하게 되는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야고보서 1:3-4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회개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성령을 파송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사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당하는 고통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하여금 이 세상 허욕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월해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내 세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모습 보시기를 원하셔서 세상 줄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갖 유혹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짝은 실족의 미끼는 돈, 명예, 권력, 성적유혹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면 왜 시험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내가 마귀에게 속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마귀가 미워하고 질투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것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18-19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소속관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행패와 환란과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을 믿음으로 타개(打開)하고 극복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많이 치루

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합격한 사람은 다른 시험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믿음이 얽치락 뒤치락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마귀가 만들어가는 상황에 집착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을 서둘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신앙인이려면 마귀가 아무리 자신을 괴롭혀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기대와 선망의 자녀로 돋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기질투해서 못살게 괴롭히고 시험한다고 깨닫는 영감적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약1:5).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의 ‘낮은 형제’란 이 세상 조건으로 가진 것이 없고 명분도 없고 지위도, 지식, 기술도 돈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상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그 사람의 세상 조건은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조건은 부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 하늘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구제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지혜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천국에서 하나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풀에 꽃과 같이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원하는 본능적 욕구를 위해 살지 말고 영생복락의 신령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9-12에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사라질 것들에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유희불에 시달리지 말고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眞髓)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17을 보면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미주통일선교아카데미

### 2018 가을학기 학생모집



미주통일 선교아카데미는 세계선교와 북한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방향,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들을 제시하며, 북한선교와 사역현장에 참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기관입니다.

- 1. 교육과정** 수업은 1년 2학기제, 1학기에 10주 북한선교 집중강의, 북한선교 포럼, \*통신강좌 기능(강의노트 및 강의 CD발송)
- 2. 학기일정 및 강의장소**
  - 오픈자카운티 캠퍼스 O.C Campus: 10/1- 12/3 10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 L.A 캠퍼스 L.A Campus: 10/2 -12/4 10주간 매주 화요일 저녁 8:00 글로발선교교회 (23425 Sunset Crossing Road, Diamond Bar, CA 91765)
- 3. 강의내용**
  - 북한선교와 관련된 선교학의 이론
  - 북한개론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제도 및 국제관계)
  - 북한사역의 현장 (구조, 의료, 교육, 비즈니스, 개발 등등)
- 4. 학비/특전** 한학기에 \$100 (탈북자, 조선족은 장학금 지급) 기타 비용은 학교 부담 수료후 북한 방문과 중국 사역현장 참관 가능
- 5. 입학/원서**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www.igm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진1매, 신앙간증문(구원간증/북한선교에 대한 비전포함)
- 6. 등록문의** O.C Campus 문의: 김상은 목사 / 213.479.2990 / gedda2002@hotmail.com L.A Campus 문의: 이진경 목사 / 657.252.2085 / jklee.gmc@gmail.com

###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북한”

구분	O.C (주님의빛교회) (월요일)	L.A (글로벌선교교회) (화요일)	강사
1. 개강예배 / 강의	10월 1일(월)	10월 2일(화)	김대평 목사 (비위선교회 공동대표)
2. 강의	10월 8일(월)	10월 9일(화)	김익혁 목사 (Connect Korea Together 대표)
3. 강의	10월 15일(월)	10월 16일(화)	김정환 목사 (풀리신학대학원 부학장)
4. 강의	10월 22일(월)	10월 23일(화)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5. 강의	10월 29일(월)	10월 30일(화)	피터 양 목사 (YM 시애틀 디렉터)
6. 강의	11월 5일(월)	11월 6일(화)	윤상혁 박사 (평양의대 척추의료원, 선양하나재단)
7. 강의	11월 12일(월)	11월 13일(화)	김요한 목사 (통일선교 전략협의회 사무총장)
8. 강의	11월 19일(월)	11월 20일(화)	박찬모 총장 (평양과기대 명예 총장, 전 포항공대 총장)
9. 강의	11월 26일(월)	11월 27일(화)	전영일 박사 (IRS 국제 화해전략 연구소장)
10. 강의	12월 3일(월)	12월 4일(화)	허문영 박사 (평화한국 대표)



미주통일선교아카데미  
Unification Mission Academy, USA



# 930 예수 초칭잔치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펴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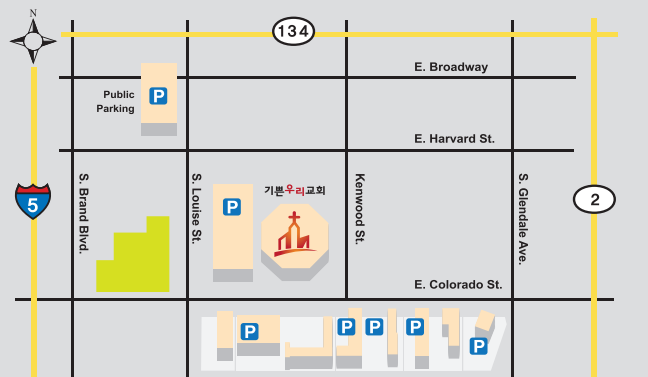
2018. 9.30 (주일) 오전 10시 30분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 예배안내 WORSHIP INFO

주일예배	본당	1부	오전 7:0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영어예배	Recreation Center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Patriots Room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본당		오전 6:00
JCCC 아카데미	교육관	오전 10:15	오후 12:40
유치부	교육관		오전 11:00
유년부	교육관		오전 11:00
중고등부	교육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Rec. Center		오후 1:30
청년부 금요모임	Rec. Center		오후 6:00
사랑부(특수사역)	교육관		오전 8:45
한국어학교	교육관		오전 10:00

## 오시는길



### P 주차장

UCC 본당 옆에 있는 주차장에는 장애우와 노약자 및 새가족 등 주차 허가증을 받은 분들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Colorado 길 건너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 안내 담당자들의 안내에 따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김 경 진

주소: 333 East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전화번호: 818-662-0400 / Fax: 818-662-0800

교회 Website: www.joyfulccc.org / EM Website: www.joyfulcc.com

Email: joyfulccc.office@gmail.com





필그림선교교회가 매년 개최해 오던 부흥회 대신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 “수평이동 통한 성장 중단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성전포기 후 미셔널처치로 전환하고 있는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매년 가을 진행해 오던 부흥회 대신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기획해 관심을 모은다.

컨퍼런스는 현지시간 오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필그림선교교회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필그림선교교회는 지난 18일 오전 필그림선교교회 선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히 미셔널 처치를 주제로 부흥회를 대신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광길 교수와 이상훈 교수다. 이광길 교수는 현재 소마대학교 총장으로 전 풀러신학교 한국어학부를 맡아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 이상훈 교수는 윌드미션대학교 WMU-SOMA D.min 프로그램 디렉터로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필그림선교교회가 교회 성전을 잃어버린 후 기존과 같은 형태의 교회로 가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지역 교회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필그림선교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평이동, 양적 성장 등의 기존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이제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지역사회와 타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교회로 변화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사회 리더들과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선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우기 소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필그림교회는 파라마스 성전을 나온 이후 기존 12개의 교구를 12개의 미셔널 커뮤니티로 재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흩어지고 선교하는 미셔널 처치로의 기능을 강화했다. 양춘길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건물을 두고 모든 교인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결과가 현재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모든 성도들이 깊이 고민했었다”면서 “그동안의 수평이동을 통한 양적 성장을 중단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앞으로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5일과 6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번씩 총 4차례 강의를 진행한다. 또 이틀간의 저녁시간은 선교부흥회로 준비했다. 평신도를 비롯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 선교부흥회는 5일 오후 8시, 6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미국장로교(PCUSA)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 KPC 목회자 컨퍼런스

### PCUSA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모색

미국장로교(PCUSA) 서북미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병규 목사 이하 KPC)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컴미션 대표 이재한 선교사와 KWMC 한국부 디렉터 최훈진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첫째 날, 이재한 선교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교사는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 사명은 절대적이며 교회는 선교의 표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둘째 날, 최훈진 목사는 “합류의 신학(Theology of Confluence in the Making)”을 향해”라는 주제로 유연한 목회 지도력에 대해 강의했다. 최 목사는 “합류의 신학은, 문화에 따라 교회가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화하면 고체화 된 교회는 액체화 된 교회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사역 또한 고체화 된 사고 방식의 목회에서 액체화 된 지도력(Liquid

leadership)을 가진 목회자로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이문희 장로, 조문길 목사의 발제로 “미국 장로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다. 참석했던 PCUSA 소속 목회자들은 “PCUSA 미국 장로교 안에 동성애에 대한 KPC 소속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신학적 소통을 준비하고, 신앙의 무기인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한인교회는 미국장로교 교인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신학적 토대를 더욱 확고히 마련해야 할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KPC는 오는 10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본국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를 초청해 “리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연합 성회를 개최한다.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담임 장윤기 목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성회에서 강용규 목사는 세 번의 집회를 통해 미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일깨우고, ‘교회의 본 모습을 향해 나아가자’고 도전할 예정이다. 폴 원 기자



**LA 지역**

주일에 오전 10:0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향동의 속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에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클링교회(7)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림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위한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하는 교회

사랑림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7번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유아,유치,유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김현인** 담임목사

**남가주든든한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공동체

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T. (213) 481-2779 lasolidrock@g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일찬양(매주)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별**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s

대예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토) 오후 1:00  
영양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67번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 대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후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5:20(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리셋예배(캘리포니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리더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리더노 목요일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받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 유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전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신,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아부,유초등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배제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영양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 예배 오전 8시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찬양예배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00(토)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람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O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1부 예배 오전 7:00 중고등부,대학부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치,유년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177 www.churchmanna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학받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성경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성경, ‘절대 금주(禁酒)’ 말하지 않아”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가 “절대 단주(斷酒)나 절대 금주(禁酒)가 꼭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동원 목사는 23일 ‘하박국(4) 물이 바다 덮음 같이’(하박국 2:12~14, 20)라는 제목으로 주일예배(경기대체플) 설교를 전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본문은 하박국 2장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였다. 이 목사는 “술취함에 대한 경고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당시 바벨론 사회에 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썼다. ‘술에 미친사회’ 알콜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경고해야 할 소위 소셜 크라임(Social Crime, 사회범죄) 중 하나가 알콜에 빠져드는 것, 이걸 경고해야 한다. 한국도 술을 권하는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아마도 술 절제를 한국 땅에서 미덕으로 간주하는, 유일한 집단

있다면 아마 개신교일 것”이라며 “저는 절대 단주나 절대 금주가 꼭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이 거기까지는 사실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목사는 “성경이 절대 금주나 절대 단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한 절제의 명령은 성경에 넘쳐난다. 우리 사회에 점점 더해가는 엄청난 알콜 소비, 또 그에 따르는 알콜 중독, 또 알콜로 말미암은 사회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을 초래했던 한 유명 배우 남편의 사고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목사는 “하박국은 술을 권하는 사회, 술을 마시게 하는 사회, 술을 취하게 하는 사회, 이런 소셜 크라임에 대해서 명백한 경고를 던진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 소식에 “놀랍고 아름다운 결단”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목사가 16일 주일예배 설교 도중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떠나려 한다”며 다소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형교회 목사로서 그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진 목사와 관련한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니 말보다 삶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런 생각과 자세가 오히려 교회를 더 교회 되게 한다.” “놀랍고 아름다운 결단” 등의 반응이다.

특히 최근 다소 부정적 뉴스들이 잇따랐던 기독교계에서 “오랫만에 반가운 뉴스를 접했다”는 이들의 글이 여럿 눈에 띄었다.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 같은 이야기”를 비롯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안정감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안주하려는 시대에 커다란 울림”이라는 소감 등이다.

이 밖에도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국교회는 절망하지 않는다. 내부사정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그동안 여러 안 좋은 소식들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가슴 한편이 아프고 또 아팠었는데... 선한 길을 결정하시고 가시는 당신 참 귀하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실제 지구촌교회 교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도 있었다. 그는 “몇 만명이 되는 대형교회의 목사님으로, 난 평신도로서 자주 결어려 별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직업적으로 빚게 되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분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참 존경하게 되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이때 목사직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서 케냐의 선교사로 돌아가신다. 누구보다 파스한 아버지이자 사랑이 가득했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케냐로 정해졌다고 기뻐하셨는데 성도로서 나는 아직 깊이 아쉽기만 하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진재혁 목사는 지난 2010년 12월 26일, 그의 나이 45세 때 이동원 목사에 이어 지구촌교회 제2대 담임으로 부임했다.

# 기장, ‘성소수자 연구위원회’ 설치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제주도에 서 진행한 제103회 총회 마지막 날인 20일, 마침내 ‘성소수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장은 지난 2015년 총회에서 ‘성소수자 목회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현의안을 표결 끝에 기각했고, 지난해 총회

에서도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과 활동’ 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결국 3년 만에 연구위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해당 안건은 경기노회가 현의했다.

김진영 기자





호주연합교회. ©위키피디아 commoms

### 호주연합교회, 동성혼 인정하고 목회자 주례도 허용

#### 결혼에 대한 새로운 정의 추가

호주연합교회(United Church in Australia)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고 목회자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키로 했다.

호주연합교회 총회장인 데이드 팔머 목사는 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서 "멜버른에 모인 265명의 총대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2개의 평등하고 구별된 선언을 불붙게 되었다"고 전했다. 결혼에 관한 첫번째 신앙 선언은 연합교회가 오래 전부터 따르던 것이다.

팔머 목사는 "기독교인들의 결혼에 관하여, 현존하는 선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삶을 함께 살아나기로 한 자유로운 동의와 헌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에 관한 새로운 신앙 선언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신앙 선언은 교인들의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목회자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호주연합교회는 호주에서 세번째로 큰 교단으로 지난 30년 동안 동성에 문제를 다루었다. 팔머 총회장은 "동성에 이슈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고, 많은 신앙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연합교회 소속 교인들은 결혼에 대한 신념을 지속적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것이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불붙기로 한 목회자들은 절대 동성결혼 주례를 강요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호주는 지난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찬성 61.6%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제약없이 신념대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호주 힐송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기독교 단체들의 경우 직용에 있어 종교적인 성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시드니대학교 패트릭 파킨슨(Patrick Parkinson) 교수는 "우리는 과거에 종교적인 자유를 보호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지금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지만, 이는 신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그 이하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평생 무신론자였던 전 호주 총독, 85세에 세례 받아



빌 하이드 전 호주 총독. ©유튜브 영상 캡처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전 호주 총독이 하나님을 만난 후 85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투데이가 현지 매체 '더 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lian)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빌 하이드(Bill Hayden) 전 호주 총독은 "평생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타적인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뇌졸중으로부터 회복되는 동안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호주 매체 '더 카톨릭 리더'(The Catholic Leader)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인본주의자로 잘 알려졌던 하이드 전 총독이 9월 9일 입소위치에 위치한 세인트메리교회(Saint Mary Church)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이드 전 총독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마음과 영혼을 갈아먹는 고통을 경험해왔다. 삶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는 이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몸은 쇠약하지만, 그는 새롭게 발견한 희망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이는 너무 오래 걸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헌신하고자 한다. 오늘부터 난 하나님의 보증인이 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에게 세례를 준 피터 딜런 사제는 "오랜 시간 무신론자였던 그는 몇 달전부터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 이는 그에게 매우 큰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

심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이드의 개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머시 안젤라 메리 도일(Mercy Angela Mary Doyle) 수녀였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성, 사회적 헌신,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의 원칙을 가르쳐주었다.

올해 93세의 그녀는 오랫동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으며,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하이드 전 총독은 세례를 받기 전 공개한 편지에서 "메리 도일 수녀는 항상 내게 사랑을 주고, 나를 받아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브리즈번의 산모 병원에서 22년 동안 행정을 맡아왔다. 이곳 병원들은 브리즈번 남부의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었다. 나 역시 대공황이 끝나갈 무렵 이곳에서 자랐다"고 전했다.

최근 그는 아내인 달라스와 딸 잉그리드와 함께 메리 도일 수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룩한 여인의 입재를 느꼈다고.

그는 "이러한 일들을 꼼꼼히 생각한 후, 믿음의 핵심인 교회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이드 전 총독은 호주의 주요 가톨릭 자선단체 중 하나인 세인트 빈센트 드 폴 소사이어티(St. Vincent de Paul Society)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강혜진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교동부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WS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아담/다미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예배 오전 9:30, 11:30  
한아태평양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교회(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유, 초등부예배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한글학교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zafgcm.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넥스트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미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암도 주님 주신 축복”  
 이관희 집사 하나님 품으로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에서 많은 이들에 은혜 선사



이관희 집사 부부의 다큐멘터리 모습

대장암 4기 진단에도 더욱 신앙을 굳건히 하며 투병 의지를 다져왔던 이관희 집사가 지난 16일 새벽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 해 KBS 스페셜 ‘암: 교회 오빠’ 편에 방송을 하며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아내 오은주 집사마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암 진단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음에도, 원망보다는 처절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대의 ‘옴’으로 불렸다. 이 집사는 “질병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 부부가 어떻게 요동치 않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며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벼랑 끝이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간증한 바 있다. 이관희 집사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

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며 “사실 그렇지 않았다. 비극적인 현실 앞에 깊이 절망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지켜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며 “그 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비교할 수 없는 깊이로 함께 애통해 하시며 가슴 찢어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다. 제 어머니를 품에 안고 눈물 짓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졌다”고 털어놓았다.

이 집사는 “이 때부터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남은 기도를 이어가게 하였고, 어머니께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으셨다는 확신과 함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지금 느끼는 슬픔과 절망을 정확히 아시며, 내 슬픔보다 아파 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은 주님 밖에 없다는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제이어스 김준영 대표  
 “우리는 ‘세상’의 빛”



제이어스 9월 정기예배 현장

“하나님께서서는 전도사, 목사뿐 아니라 평신도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길 원하십니다.”

제이어스 김준영 대표가 제이어스 9월 정기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제이어스는 Jesus is with us의 줄임말로 지난 2010년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9월 정기예배에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본문으로 제이어스의 시작과, 비전 등에 대한 소개가 더해졌다.

본론에 앞서 김준영 대표는 제이어스 사역을 시작하기까지의 짧은 간증을 전했다. 모태신앙이자 학생회장, 찬양팀 리더 등 교회학교계 엘리트 출신이었던 김준영 대표는 학교 밴드부에 들어간 후 점차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한 사연, 이후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학교, 유명 뮤지션이라는 목표를 쫓아 살았지만 그 끝엔 큰 기쁨도 없고 즐겁지 못했던 일을 고백했다. 그렇게 입대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후 교회에서 간사, 리더할 것 없이 교회를 정진 없이 섬기기 시작했다.

김준영 대표는 “주님을 쫓아 11개국 34개 도시를 돌았다”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또 우리 조국 교회를 열마

나 사랑하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지 깨달았다”고 했다. 그런 그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참담했다. 김준영 대표는 “우리 주님은 개독교로 손가락질을 받고, 다음세대 복음화를 3.8%이란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앞에 눈물 흘렸다. 그때 주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주셨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주님께선 다음 세대를 회복하겠다는 소망을 부여주셨습니다. 우리 통해 거룩한 세대를 세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제이어스가 됐습니다. 제이어스는 찬양 팀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전이고 그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김준영 대표는 “세상과 현실은 거대해 보인다. 마치 우린 폴리앗 앞의 다윗 같다. 그러나 작은 물 뱀뱀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릴 때 주께서 폴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참기쁜 소식을 만방에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이어스는 2011년 2월 첫 정기예배를 시작한 이후 정기예배, 콘퍼런스, 국내 및 해외 워십 투어, RDS 사역 등에 힘쓰고 있다. 정기예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드러진다.

김신의 기자



### 마지막 시대와 AB 2943 법안

종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기를 우상화시켜 자신의 법을 따르는 자율적인 행동(autonomous acts)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표현하는 이반 로우(Evan Low, 민주당 South Bay) 주 하원위원은 어렸을 때 받았던 “성전환치료의 뉘앙스 경험”을 통해 AB 2943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018년 3월 23일에 성적 소수자, 즉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LGBT) 코커스를 운영하는 그는 같은 민주당 소속위원들과 같이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되고 난 뒤, 올해 4월에 50-10 표결로 주 의회(Assembly)에서 찬성 통과되었고, 8월 16일에는 주 상원에서 25-11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이송되어서 서명만 받으면 이 법안이 시행되는 단계까지 갔으며, 어떠한 성소수자의 치유를 위한 상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AB 2943 법안은 “불법적 사업행태인 성적정체성 변경시도에 관한 법안”이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내용은 성전환을 위하여 기독교적 배경에서 하는 상담과 책자의 소개 등이 “사기성 있는 사업 행태”로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가진 도전적이고 신앙 파괴적 함의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단체와 운동가들이 반대 서명과 의견개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로우 위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가결되면, 교역자가 교인에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이고 신앙적인 정의 아래서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전문적인 카운슬러, 로우 위원을 만났으며, 한 때 동성애자였다가 치유를 받은 후 성소수자 공동체에서 치유사역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로우 위원을 면담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기도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결국은 성경과 성경에 근거를 둔 결혼상담 서적과 전문서적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터라 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폐지하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을 인간변혁의 책자로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방면으로 대화를 나누던 로우 위원은 하원, 상원에서 모두 지지를 획득하였지만, 이 법안을 올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하며 법안 자체가 사문화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뚜렷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성도의 기도와 대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말이 코앞에 다가온 심각한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믿음의 강력한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기독교와 그 가르침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시국의 일을 돌아보면서 근신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벧후 4:7)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거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나만 바뀌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대신, 나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면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환경이 바뀌므로 내가 바뀔 때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이어트다. 많은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실제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식욕을 다스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은 웬만한 의지와 결단 없이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므로 더 큰 성과를 빠른 기간 안에 얻을 수 있다.

나는 교육 현장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학생 혼자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하면 교사와 학부모, 교육 환경에 상관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소박한 소망이다. 간혹 메스컴에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좋은 성과를 낸 학생을 소개하면 누구나 그렇게 할수있다고 착각한다. 현대,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특별한 사례를 선불리 일반화시켜서 비현실적인 기대와 잘못된 환상을 심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학생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이 바뀌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학교든 교회든가정든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다. 교육 환경을 구성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네 가지 요소는 교사, 학생, 시설, 교재이다. 그렇다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성과를 향상시키는 촉진자인 교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교재에 관해 생각해 보자. 미국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연방정부나 각 주(州) 교육부에서 선정한 기준에 맞춰 교재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교회의 경우에는 각 교단에서 발행하는 주일학교 공과와 여러 선교단체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펴낸 다양한 성경공부 교재가 나와 있다. 이와 같이 교재는 전문 기관과 관련 기업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 좋은 내용으로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할 때 교육 목표와 학생 수준에 맞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즉, 현재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교재의 질이나 다양성, 그리고 availability 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어떻게? 시설은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여러 장소와 설비, 특히 교실이나 특별활동을 위한 공간과 프로젝트나 TV, 과학 실험 기구 같은 교육 기자재를 뜻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학교의 교육목표와 예산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나는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낡은 시설의 학교에서부터 건물을 멋지게 신축한 학교까지 두루 다녀 볼 기회가 있었지만, 시설이 좋다고 좋은 학교가 아니고 시설이 낡았다고 뒤떨어진 학교가 아니었다. 새 건물과 깨끗한 시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첨단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나쁠순 없다.

하지만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변화와 학습 성과의 향상이다. 교재와 시설이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요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의 교육 성과나 질을 시설로 판단할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와 학생을 통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가을 맞이 고국일주 여행**

www.kaarp.org

그리운 고국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일 정**

- 고국방문 7박8일 한국일정 (10/6-10/13) \$1,140 + 항공료 (특급호텔, 식사, 가이드팁 포함)
- 음션 베트남 3박5일 베트남일정 (10/2-10/6) 고국+ \$450

www.KorusTour.com  
 문의: 213) 503-6196 제시카 213) 842-7079 JAY LIM

### 이별

최근에 몇 번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아쉬운 이별과 아픈 이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별도 있었나 생각해 보았는데, 좋은 이별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겪은 가장 흔한 이별은 성도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저의 사역이 유학생들이 주로 있던 교회와 시작해서 그랬는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직장을 잡고 들어가는 성도들과 매년 헤어지면서 강단에서 영영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이사 가는 성도님들과 헤어지는 것도 참 아쉬운 이별이었습니다. 주로 직장 때문에, 혹은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떠나는 성도님들과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며 좋은 교회와 목사님 만나서 신나게 신앙 생활할 것을 축복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랠니다.

제가 이별을 자초한 적도 있습니다. 청빙을 받아, 새롭게 사역할 교회로 떠나가며, 목숨 걸고 사역했던 교회와 사랑하던 성도들과 이별을 고할 때였습니다. 떠나는 저에게 마지막 인사하겠다고 공항에 나온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시체를 밟고 넘는 기분이라면 너무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별의 아픔을 그때처럼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3년 전 아버지와 헤어지던 때가 기억납니다. 폐암으로 7개월 투병하시고 천국 입성하시기 전 마지막을 직감하신 아버지와 같이 껴안고 죄송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은 오늘도 어제 일 같이 생생합니다. 함께 베델교회에서 동고동락했던 목회자들이 독립해서 어엿한 담임목사로 이입해갈 때도 팔 시집보내는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하며 보냅니다. 물론 영원한 이별은 아니지만, 나의 책임의 울타

리를 벗어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공부하기 위해 떠나는 자녀들과의 이별, 남편 혹은 아내를 떠나보내는 이별, 같이 신앙 생활하던 성도들과의 이별, ... 돌아서는 아쉬움에 먹먹해진 가슴에 얹힌 맺돌이 시커먼 눈물되어 흘러내릴 때 한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소망 중에 이별의 아픔과 아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나 없어서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처음 떨어져 지내면서 성숙과 독립을 배우듯이 이별은 소망 속에서 아픔과 아쉬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승화합니다.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흩어졌던 베델 식구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잠시 만나는 시간이지만, 이별했던 성도들을 다시 볼 마음에 저에 가슴에도 흥분이 올라 오기 시작합니다. 이별은 아쉽고 때론 아프지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미스바**

화요 여성 찬양예배

10월 2일 첫예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520 S. LAFAYETTE PARK PL#200  
 LA CA 90057 (LA 비전교회)  
 문정란 목사 | 213.344.6313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현장 견학주변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기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 발목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아 파우더 3달분 \$60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381-0081, FAX: (213) 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신학교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연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개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71628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 414-3754 Email: ks@mm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 527-0691 (0692) Fax: (714) 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김명식 “제 노래가 힘든 이들에게 친구가 되길”

## 정규앨범 <예수의 바람>으로 돌아온 김명식(上)

“예수의 바람 생명의 바람  
예수의 바람 능력의 바람  
지금 이곳에 불어오소서  
나의 맘 속에 내 영혼 깊은 곳  
세계 열방에 불어오소서”  
-김명식 '예수의 바람' 中

CCM 사역자 김명식 씨가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이후 5년 만에 정규앨범 <예수의 바람>으로 돌아왔다. 1986년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출전하며 찬양사역을 시작한 김명식 씨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사람을 살리는 노래' '벼랑 끝에서 할렐루야' 등의 곡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노래해왔다. CCM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를 최근 서울 지하철 수서역 인근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앨범을 내셨습니다. 근황은 어떠신지요.

“논문을 다 쓰고 앨범을 내려다가, 딸이 갑자기 아프면서 멈춰었는데, 기도하다가 음반을 먼저 내야 할 거 같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음반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5월에 음반을 마무리하면서 공연을 했지요. 지금은 논문 작업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논문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나요.

“한국의 CCM 아티스트와 노랫말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CCM에 대해서 단편적인 평가로 많이 얘기하는데, CCM을 바라보는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곡을 잘 이해하려면 곡을 쓴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프리즘에 빛이 들어와서 무지개가 생겨나듯, 아티스트가 프리즘이 되어 무지갯빛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어요. CCM 아티스트들을 만나 보면 정체성이 크게 음악가, 교회음악가, 순회 음악 선교사 이렇게 4개로 나뉘어요. 사역자의 생각과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체성부터 이해해야 하겠죠. 그다음에 영적인 의도나 지속적인 방향 등을 알아야 해요. 그 후에 노랫말을 묵상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첫 트랙이 아카펠라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다양한 음악색이 있는데, 때론 그런 것들이 과할 때가 있어요. 그

래서 곡의 메시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기교 없이 목소리만 있어도 괜찮겠다고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처음엔 제가 모든 파트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렇겐 못 했어요(웃음).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피아노 하나만 해서 조용히 예배하듯 부를까 하다가 아카펠라로 정했는데 잘한 거 같아요.”

수록된 곡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손이 중요해요? 발이 중요해요?” 이것과 같은 질문이에요(웃음). 음반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10년 이상의 이야기를 담은 긴 이야기를 꼽자면, 집회 때 한 15년간 늘 꽃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걸 이번에 ‘꽃처럼 피어나리’라는 곡으로 만들었죠.

또 ‘누군가 꿈꾸던 그 날’은 동생을 떠나 보내고 간증할 때 늘 하던 얘기였죠. 떠날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걸 잡으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야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걸 곡으로 담았죠.

타이틀인 ‘예수의 바람’은 어느 날 앓아있다가 새벽에 써 내려간 제목이에요. 예배 컨퍼런스를 마무리 하



김명식 정규앨범 <예수의 바람> 앨범 자켓.

며 기도회 하고 있을 때 악상이 떠올라서 휴대폰에 녹음했다가 만들었습니다. 곡을 완성하기까지 3년 걸렸지만, 효소처럼 CCM도 속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앨범 커버 사진에 얽힌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컨티넨탈싱어즈를 하던 1992년도에 교통사고로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때 천관웅 목사도 멤버였고 좋은씨앗도 다 함께하고 있을 때였죠. 동생 무덤 앞에서 한



CCM 사역자 김명식 씨

30명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노래하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먹구름 끼고 눈보라 치고...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저기 하늘 좀 보라고 소리 질렀어요.

하늘을 봤는데, 먹구름이 움직이다가 가운데가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빛이 쏟아졌어요. 몇 초 있다가 사람 얼굴로 바뀌는 듯하더니 사라졌어요. 그때 그 하늘을 지금 성결대 문화선교학과장으로 있는 친구가 찍었어요. 그게 바로 앨범의 커버 사진이 된 겁니다. 또 나중에 보니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보통 음반 발표할 때 자기 사진 찍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안 났어요. 기도하다 갑자기 그 사진이 보였죠. 이번에 새로 찍은 사진이 없어요. 글씨도 다 제가 썼어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같아요.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 모든 젊은이는 다 늙게 마련이고, 늙으면 누구나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심플해요. 누구나 죽어요. 더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도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다고 하죠. 사실 인간적으로 아프고 아쉬운 건 있지만, 대단히 안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 아니고, 먼저 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올 때가 있듯이 누구나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떠나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헨리 나우웬의 ‘거울 너머의 세계’란 책이 있어요. 작가가 백미러

에 치어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하는 과정에 중 경험한 생각을 쓴, 죽음에 대한 묵상을 담은 책이에요.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 ‘정말 큰일 날 뻔 했는데 다행’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작가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천국 갈 수 있었던 기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차이가 있죠. 죽음과 천국, 하나님 뜻을 얘기하면서도, 막상 사는 건 현실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그런 면이 제게 도전이 됐고, 때론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할까...’ 음반 낼 때도 때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만 평생을 불러도 괜찮을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담은 다 알아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널 크게 쓰시려 하는 거야’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건 잔인하죠. 정답은 나만 아는 거로 하고, 나는 손을 내밀고 끌어안아주고 기회되면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에겐 답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같은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벼랑 끝에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 메


시지성경 마태복음 5장 3-12절 中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세월호 희생자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헤어지고 오면서 고민하다가 이 구절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보내면서 미안했어요. 보내기가 미안한 구절이죠. 아나니 다들 답이 안 왔어요. 나중에 ‘무슨 애긴지 알겠는데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상투적으로 익숙하게 정답을 얘기하는 건 힘든 거죠. 공연 때 모셨는데, 집사람이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다가 나갈 때 밝은 표정으로 나갔다고 얘기 해주었어요.

노래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아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수의 바람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8장 1절과 연결돼 있는데, 마음 속에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운 채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게 다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올 거라는 메시지죠.

제가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가서 말할 수 없지만 노래가 던져지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제 손을 떠난 노래가 미처 만나지 못했던 각 사람 속에서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멀리서 저를 볼 땐 가수지만, 실제로 꿈꾸는 건 제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 깨달음이 노랫말이 되고, 노래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심겨져, 그의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음반을 만드는 건 그런 일의 연장선 거죠.” (계속)

김신의 기자



#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 2018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 (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9월 27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WWW. CTUIA.ORG



# 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 성결대 ‘잡 콘서트’서 기부·결혼 주제로 질의응답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기부 천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가수 선(노승환)이 최근 성결대학교 ‘잡 콘서트(Job Concert)’에서 청년들을 위해 행복한 삶과 진로에 대한 특강을 전했다.

2004년 결혼하며 하루 1만 원씩 시작한 기부는 어느덧 후원 아동 900명을 넘어섰다. 선과 정혜영 부부는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이 설립된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현재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날 특강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됐다. ‘기부 천사’라는 별명답게 ‘기부’에 대한 질문과 또 청년들이 가진 ‘꿈’, ‘결혼’, ‘후회’ 등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다. 아래는 그 질의응답을 요약했다.

### 기부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나요?

“많이 기부하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근데 기부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큰 돈이 없으니 기부와 나는 상관이 없어’ ‘돈을 많이 벌면 그때는 할 거야’ 하고 기부를 나중에 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기부받는 대상은 그 나중에까지 못 기다려요. 당장 밥 한 끼가 없어 굶고, 신발 하나, 속옷 하나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 누군가가 성공할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렇다면 나의 주머니에 있는, 찜작아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적은 금액이라도, 100원 동전 하나를 꺼내서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나라 전체 인구가 기부하면 50억이 되거든요. 기부는 크기에 상관없이 마음이에요. 또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말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된 것뿐이에요.”

### 오랜 기간 바른 이미지로 사는데 힘들지 않음지.

“여러분이 저를 알기 전 한참 힘합 할 때 전 빠르게 살았는데, 이미지가 바르지 않았던 거 같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알려지고 보이려는 삶을 살면 참 힘들어요. 나쁜 이미지인 사람도 그 나쁜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 이미지가 자기 자신이면 별 상관이 없는 데 나쁜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힘들 거예요. 좋은 이미지도 똑같아요. 이미지로 유지하려면 제 삶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제 행복한 삶이예요.”



가수 선이 청년들을 위해 삶과 진로에 대한 특강을 전했다.

요. 제 행복한 삶이 그냥 보인 건데 그걸 좋게 생각해주는 거죠. 선 정혜영 부부가 나중에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제게 있어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 꿈이 뭔가요?

“우리가 보통 꿈을 얘기할 때 ‘어떤 직업을 갖자’, ‘뭐가 되어있자’라고 하는데, 방금 어떤 학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꿈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꿈을 가지고 뭐가 가지며 살아야.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꿈,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해요. 그러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직업상의 목표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직업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서 있는 어떤 곳에서 꿈을 이뤄가는 거예요.”

제 꿈은 과학자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대통령, 과학자 그런 꿈을 많이 했어요. 전 실제로 상당한 재능이 있었어요. MIT 공대를 가려 했어요. 지금은 일단 MIT 공대를 못 가고 과학자도 못 됐어요. 그렇다고 실패한 삶인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쩌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죠.”

### 예비 신혼부부에게 조언을 하자면

“정말 신기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 해서 결혼하는데, 꼭 그렇단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결혼에 대해 많이 부정적

으로 봤죠. 저는 이제 결혼하고 14년 차인데, 살아보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혼 전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거 같아요. 어떤 누구는 매일 불평하며 지옥을 살아요. 이견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돈 많은 사람이 하루 하루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없는 이는 부러워할 수 있지만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딱 결혼하면서 눈의 공각지는 벗겨져요. 그래서 많은 커플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에서 싸운대요. 왜냐면 연애했 때는 다 좋아 보이고 장점이 더 보이다가 공각지가 벗겨지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지금 장점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은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단점이 보인다? 그럼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점을 자꾸 끄집어내 주는 거죠.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자꾸 칭찬하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는 자꾸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자꾸 반대로 한단 거예요. 장점이 많은 데 단점을 자꾸 지적해요. 그래서 싸움이 됩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에게 단점을 자꾸 지적하니 말이죠.

또 우리가 살며 대접받길 참 좋아합니다. 누구든 자기 위치에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그건 결혼해도 똑같아요. 아내는 공주, 남편은 왕자 대접 받고 싶어 해요. 누군가가 하녀 취급 당하면 누군가는 공주나 왕자가 되지 못해요. 끝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내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제 세상을 떠난 여러 사람도 오늘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오늘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나 또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죠. 만약 제가 어제 하루를 아내와 싸우고 잠들었는데, 오늘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후회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산다면 오늘 내 배우자를 최선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 정말 화가 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나요.

“3초만 여유를 가지려 노력을 해요. 부모가 되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화를 내요. 돌아보면 별일 아니라 후회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때 ‘하나, 둘, 셋’하고 ‘별일 아니었다’ 하는 거죠.

또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잠을 만큼 잠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화를 내는데, 정말 잠을 만큼 잠았는데 도저히 못 잠겠다 하고 화내는데 잠을 만큼 잠은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잠는 건 잠을 만큼 다 잠고, 그 다음 한 번 더 잠는 게 진짜 잠는 것.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는 것도 누구나 다 하는 노력이에요. 그다음부터가 진짜 노력이에요. 많은 청소년 청년이 그 지점까지 못 가고 포기를 해서 진짜 뭔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포기했어. 아뇨. 아직 노력 안 했어요. 그 지점부터가 진짜 노력 이거든요. 물이 몇 도에서 끓는지 아시죠? 100도예요. 99도까지 간 다음에 ‘아직도 물이 안 끓네’하고 불을 끄면 물 끓는 거 못 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90도 91도까지 해보고 안된다고 포기해요. 그래서 물 끓는 걸 못 봐요. 우리가 정말 물 끓는 걸 보려면 100도까지 가야 해요.”

###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그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 없이 바쁘게만 살 때 우리가 해매게 되요. 제가 신앙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기에, 딱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요. 그다음 우선순위가 가족이에요. 제 스케줄이 들어오고 그럴 때 그걸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잡아요. 돈과 상관없이. 그런 하루하루를 계속 지속했더니 14년 만에 선 정혜영 부부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 롤모델은 누구인가?

“지금 제가 롤모델로 보고 사는 분은 이제철 목사님이예요. 결혼 전에 그분의 책 ‘참으로 신실하게’를 읽게 됐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것, 제게 있어 모든 걸 바꾼 책이었어요.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 하고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책 집필하느라 사람을 안 만나던 때인데,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번만 더 봐줄 수 있냐고 했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목사님께서서는 사모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50대셨는데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엄청 아프셨는데 목사님 아내에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아파주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50대 나이, 그것도 부산분이신데 경상도 남자가 30대 청년들 앞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분과 헤어지고 제 여자친구와 우리 결혼했을 때 저런 마음으로 살자고 했죠. 다음에 목사님과 또 만남을 갖게 됐어요. 이번엔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10대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목사님께 4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전 완벽한 4명의 아이를 품었죠. 그리고 4명의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주신 분이예요.”

### 기부와 현금 중 어느 걸 더 많이 하나요?

“현금은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기부는 그 받은 것에 감사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하는 거예요. 만원은 구겨져도 그 가치가 변화되지 않아요. 살면서 자존심이 찢기고 여러 관계 안에 기분 상할 때도 있고 누군가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한다면 분명 성공한 삶을 살 거예요. 전 16살에 가출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 청소년들을 다르게 봐요. 그런데 저의 값어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 같아요. 어떤 일을 겪어 왔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되건 세상에서 70억 인구 중 나 혼자만의 나만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산다면 아마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 세상은 참 많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해요.”

김신의 기자



##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OPEN HOUSE**  
November 1, 2018 @ 7pm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 믿음으로 하루 하루를 담대하게!

##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19)- 손미자 권사



손미자 권사(웨스트힐 장로교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를 향한 담대함을 갖게 한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조차 담대하게 맞는다. 기자는 큰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보아 왔다. 암이나 치명적인 병마와 싸우며 초라해 지는 사람도 봤다. 반면에 믿음의 자세로 병마와 싸우며 담대하게 현실을 이기는 근사한 신앙인들도 만났다. 기자가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 손미자 권사(웨스트힐 장로교회)를 만났다. 손 권사는 매사에 조심스러웠다. 기자를 만나는 것이 혹시 섬기는 교회나 담임 목사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에는 힘이 넘쳤다. 손을 펴며 자신을 소개하던 손 권사는 확신의 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을 들려주었다.

고 눈물과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교회에서 재워주셨다. 교회가 참 따뜻한 곳이라는 추억을 갖게 되었다.

### 어렵듯한 빛이 비칠 때

손 권사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 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 성경시간도, 체플시간도 있었지만 요리 조리 피해 다녔다. 찾아온 복음의 빛을 피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결혼했다. 미국행을 결심한 남편은 결혼식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고 막내 시누이와 송탄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같은 집에 셋방살이를 하던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손 권사를 전도했다. 권사님을 따라 새벽기도회를 다니다 담임 목사의 권면으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를 다녔다. 그러나 복음의 빛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형편이 나아져 천안으로 이사하고 교회를 다녔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에 있던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한국에 잠시 나왔다. 남편을 전도하려고 설득했으나 쉽지 않았다. 남편 전도를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영화 구경도 제안했으나 남편은 영화만 보고 교회는 잘 가지 않았다.

###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던 중에 손 권사가 갑자기 토하는 증세를 보였다. 쉬지 않고

토했다. 물도 마시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아주 심했다. 그래서 망향기 도원을 찾아가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두고 홀로 참석한 사람이 있었다. 그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기도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난동을 부리는 그를 성도들이 붙잡아 진정시키고 부흥사가 안수 기도를 하자 그는 금방 나아졌다. 기적이었다. 그가 목발을 버리고 걸어서 집으로 가는 모습을 목격한 손 권사와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손인국 안수 집사)도 자신(손 권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손 권사는 가슴에 돌덩어리 같은 것이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남편도 머리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튀어 나가는 것을 체험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손 권사는 그렇게 심했던 구토증세가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기도원에서 내려와 손인국 손미자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주일 예배를 회피하던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후 8개월은 참 좋았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부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 시련과 훈련의 시간들

미국으로 건너와서 라스베가스에 정착했다.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할머니의 인도로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로 가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았다. 남편은 이 시절에 신앙적 방황도 했다.

이 와중에도 손 권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다. 출석했던 순복음교회 사모님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7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를 했는데 모든 가정들이 자녀를 잉태했고 사모님도 늦둥이를 임신했다. 물론 손 권사도 임신해 아들(손 쥬셉)을 얻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지금 든든하게 자란 아들을 보면 그 시절의 은혜가 새롭다. 소중한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힘을 얻은 손 권

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여고 시절에 익힌 한국고전 무용을 교회에서 가르쳤다. 배우는 아이들이 백여명이 될 정도로 그는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했다.

### 남가주에서 새로운 신앙생활

LA지역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은 만만치 않았고 건강 약화와 교회를 찾는 어려움을 핑계 삼아 신앙생활을 쉬었다. 영적으로 방황하며 약 4년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 신앙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 그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소름 돋도록 섬뜩하다. 신앙생활을 쉬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곧 적응되어 편안해지는 영적 무감각증을 경험했다. 그래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 늘 돌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가 보였다. 우연한 기회에 웨스트힐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팀을 만나서 웨스트힐장로교회로 찾아 갔다. 온 가족이 이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은퇴하신 김인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아울러 현재 오명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세대교체를 이룬 이 교회가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 병상에서 경험하는 새 은혜

손 권사는 평생 건강과 싸우고 있다. 늘 건강이 걱정이다. 다른 삶의 형편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단순한 질병이나 약함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다. 2016년 8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검진도 수술의 과정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다. 혈압 때문에 마취에서 쉽게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손 권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치료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빨리 퇴원해 집으로 돌아가기를 고집했다. 퇴원 후 수요일예배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쏟아졌다. 늘 앉아서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감사와 기쁨이었다.

그의 삶은 죽음을 직면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암이 완치

된 것도 아니고, 고질적인 당뇨로 여러 합병증이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벌써 죽었어야 할 자신의 몸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에게 주어진 고전무용 사역을 쉬지 않는다. 고전무용이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 기도제목과 비전

손 권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보낸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손 권사는 시시때때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의 마음의 담긴 기도제목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손 권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둘째, "환우들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는 건강을 잃은 자의 아픔을 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아픔을 알 수 없다. 손 권사는 많이도 아팠다. 병상에 누워서 남편과 아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다. 그는 애잔한 마음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셋째, "고전무용 레슨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손 권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고전 무용을 했다. 고전무용이 은사요 재능이다. 그는 부채 하나만 있으면 전도가 가능하다. 배우는 아이들도 훗날 이렇게 주님 섬기기를 기도하며 일하고 있다.

넷째, "추억 속에 있는 교회 할아버지 같은 따스함을 품게 하소서!" 손 권사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 고향 마을 교회 할아버지께 받은 영향이 매우 크다. 할아버지 같이 따스한 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를 향한 기도, 남편과 아들을 향한 기도들을 고백하면서 손미자 권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인 까닭이다. 운전해주고 동행해준 아들을 옆에 두고 담담히 토해내는 간증은 따스하고 강렬하고 은혜로웠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했다.

강태광 편집위원

### 어린 날에 만난 교회 할아버지

손 권사는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나 자랐다. 어머니는 절을 지을 만큼 독실한 불자였다. 그런데 그 시절 마을 교회를 잊지 못한다. 어머니께 혼나서 울며 교회를 찾아가면 늘 반겨주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할아버지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 종을 치고, 교회를 청소하셨다. 그분은 참 따뜻하셨다. 울며 교회를 찾아가면 어린 미자를 반겨주시고 포옹 감싸주시며 기도해 주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 이민법 전문 변호사

#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걸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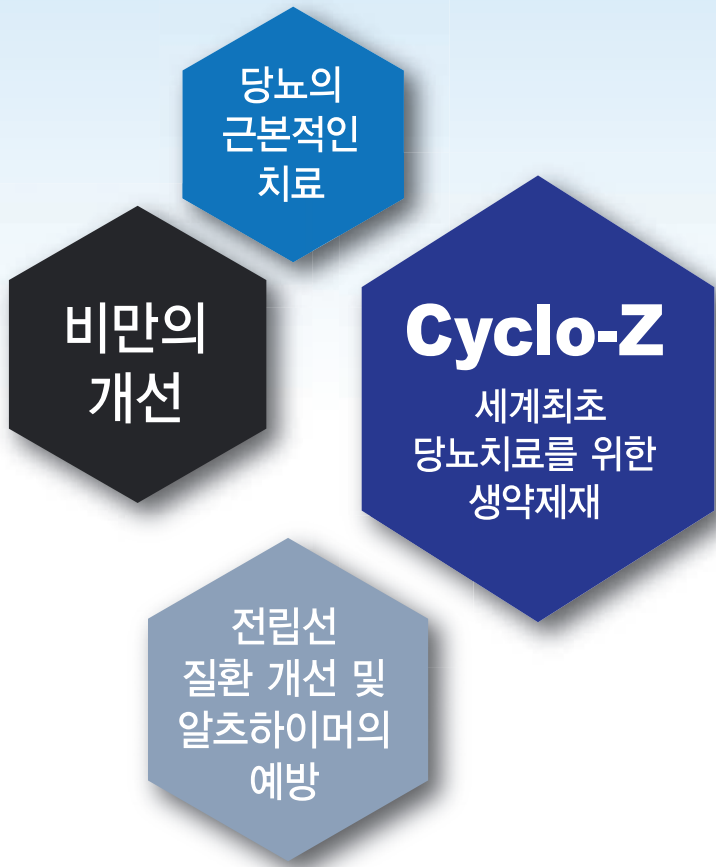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 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병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둔 상태입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